

LA의 한인건강정보센터

김대규 ■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교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LA(로스앤젤레스)는 미국 내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영어를 몰라도 별 불편없이 생활할 만큼 교포사회가 커졌다.

초기 이민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자리를 잡자 형제들을 불러들였고 다시 부모를 모셔갔다. 그리고 이민 2세들이 태어나면서 교포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LA교포 인구는 6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1981년 미국의 사회봉사기관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코리아 타운 조사위원회는 UCLA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포사회와 교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사회학적 조사를 실시했다.

정체성의 결여와 취직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건강과 의료문제임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유나이티드 웨이”는 한인건강정보센터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 Research Center)의 설립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에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며 이 센터 설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한인사회의 건강의료문제가 LA카운티 당국에 보고 되자 카운티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당장 예비비에서 48,000달러를 지출하여 보건국을 통하여 한인건강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유나이티드 웨이”의 권고로 1986년 설립

1986년 11월에 마침내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 한인건강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설립 후 10여 년간 한인사회와 미국의 의료복지 체계와의 교량 역할을 해 나가며 언어장벽과 문화적 장애로 인해 의료복지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사회 구성원들의 의료복지 욕구를 해소시키는 데 큰 몫을 해왔다.

특히 이민 1세대와 저소득층 및 노인



1998 4 1 한인건강정보센터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간부들 좌로부터 김전우 소장, 한응수 상근 부이사장, 김용일 이사장, 박영장 부소장 ↑ 건강정보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도 알선하고 있다 →

층에 중점을 둔 건강관리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으며 또한 흩어져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결집 조직화하고 활용하여 한인사회를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한인건강정보센터는 이러한 제반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유수의 의료기관 및 여러 공사업 건강관리 단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 보건국, LA카운티 보건국, LA시의 재정지원과 “유나이티드 웨이”를 비롯한 여러 독지가와 회사들로부터 기부금



을 받아 보다 나은 의료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한인사회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한인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남미계 이민과 중국인, 일본인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6·25 휴전직후 한국정부에서 당시 최대 국민병이었던 결핵관리 프로

그럼을 정열적으로 추진했고 대한결핵 협회 창립의 산파역을 맡았던 한응수(韓膺洙)박사가 이 센터의 설립당시부터 실무책임을 맡아 26명의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조직과 예산

현재 이사장은 김용일(金容一) 박사, 상근 부이사장은 한응수 박사가 맡고 있으며 간부직원은 소장에 로라 전, 부소장에 박영창, 사무장에 캐티 백, 프로그램 기획담당 강은혜, 노인복지센터 소장 김찬우, 클리닉 사무장 이창희 등 우수대학을 나온 교포 엘리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김찬우씨는 1994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미시간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유학생 출신이다.

예산은 1998년도의 경우 총계 125만달러로서 주정부, LA카운티 등의 공공보조와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졌다.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에이즈예방 프로그램을 위하여 178,750달러(152%),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위하여 201,250달러(162%), 사회보장제도 안내프로그램에 273,375달러(219%), 종합건강 및 사회보장서비스에 274,625달러(22%), 간암조기발견 프로그램에 211,750달러(17.0%)를 각각 배정했다.

건강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금연과 에이즈 예방이 두드러졌으며 결핵예방교육 프로그램은 포함은 되어 있었으나 큰 비중은 아니었다. 금연운동은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고 했다.

에이즈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은 에이즈와 성병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감염자를 위한 치료기관 소개 등이다. 그리고 간암 조기발견 프로그램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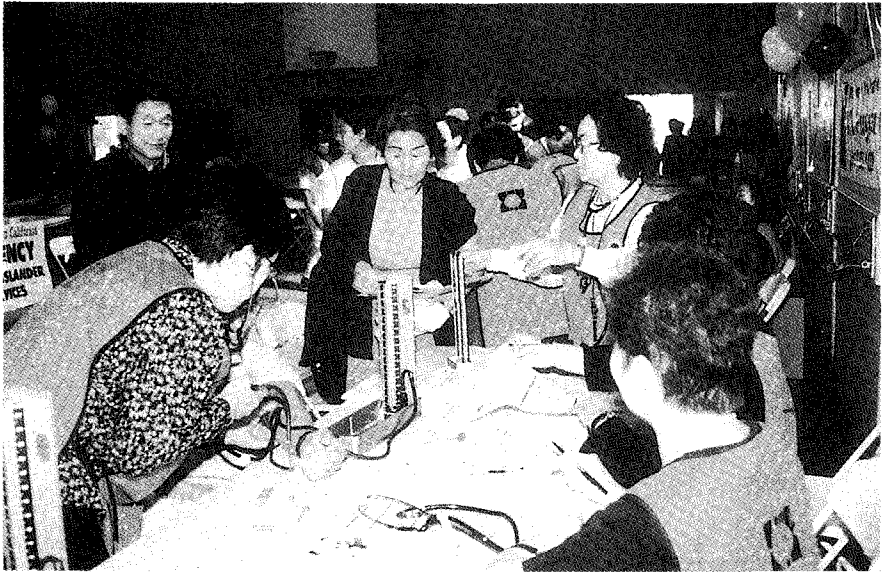
노인복지센터 확장이전

한인건강정보센터 부설로 노인복지센터(Adult Day Health Care Center)와 클리닉이 있는데 노인복지센터는 1997년 7월 시작했으며 이곳에 등록하는 신청자가 날로 늘어나서 그때도 30명이 등록을 대기중이었다.

여기서는 치매진단 및 예방, 장애자의 재활운동, 노인환자를 위한 진료상담 서비스, 노인의 사회성 개발과 건강관리, 무료점심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내가 방문했을 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한 방에 노인들이 모여 배달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양식이지만 메뉴가 푸짐했으며 이 점심제공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라고 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이민생활의 애환과 외로움을 달래며 친교를 돈독히 하는 대화의 장이기도 하다.

등록자가 늘어나서 더 넓은 집을 월세 8,000달러로 임대하여 수리중이라고 했는데 금년 1월 17일 새 집으로 이사 가서 매일 75명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자원봉사자 등이 돌보고 있다고 한다.



한인건강정보센터에서 연례행사로 실시하는 무료 진료광경 교포 외에 중남미계 사람도 있다(사진 위)

금년에 노인복지센터 사업을 위해 주 정부의 70만 달러 등 9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교포사회의 건강파수꾼

역시 건강정보센터의 부설기관인 클리닉도 금년 1월에 더 넓은 건물로 옮겨가서 더 많은 교포들에게 연례 건강검진, 성인병검진,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 각종 예방접종, 간암조기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한인 건강정보센터는 LA 교포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내가 이 센터를 방문하여 한응수 박사 내의를 만난 것은 작년 8월 4일이었

는데 10여 일후인 8월 15일 광복절에는 한박사가 교포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8·15민족대상을 수상했고 부상으로 받은 세피아 승용차에 옷돈을 얹어 뺨을 사서 노인복지센터에 기증했다고 한다.

76세의 나이에 도 젊음이 못지않은 열정과 왕성한 행동력으로 교포들의 건강증진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한응수박사의 모습에서 40여 년 전 6·25동란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끓던 결핵을 없애려고 동분서주하던 그 패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은 흐뭇한 감동이었다. †

주소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 Research Center 545 Gramacy Place Los Angeles, CA 90020 U.S.A.